

## 안달루시아와 마그레브에서 베르베르 부족 '바누 이프렌'(Banu Ifren)에 관한 연구\*

임 기 대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교수)

### ◆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베르베르'라는 용어를 통해 마그레브 초기의 이슬람 왕조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이베리아반도의 안달루시아 문화권과 론다 타이파를 조명해본다. '바누 이프렌'이라는 베르베르 부족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된 바가 없다. '바누 이프렌'을 통하여 초기 마그레브 이슬람 왕조의 특징, 이후 이베리아 반도에 진출하여 이들이 건립한 론다 타이파의 특징을 살펴본다. '바누 이프렌'과 '베르베르'에 대한 조명은 마그레브 이슬람과 안달루시아 문화의 역사적 과정의 재구성이라는 면에서 중요해 보인다.

'바누 이프렌'을 통해 우리는 지중해 문명이 상호·교차적인 관계 이상으로 순환적 교류 구조로 되어 있음을 보고자 한다.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연구이지만 이는 오늘날 알제리의 틀렘센이 마그레브 지역에서 보이는 정체성을 여러 각도에서 재조명해볼 할 수 있고, 이는 안달루시아 문화권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동안 모로코보다 알제리 내 안달루시아 문화 연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안달루시아 문화권 연구의 확장이라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문헌 조사 발굴과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주제어 : 베르베르, 바누 이프렌, 안달루시아, 론다타이파, 문명순환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2022221).

## 1. 들어가는 말

마그레브(Magherb)<sup>1)</sup> 지역에서 베르베르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슬람화된 이 지역에서 베르베르인은 자신의 정체성 찾기 운동을 주도하며, 정치인들은 이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여 정책에도 반영하고 있다. 식민지화 이후 한동안 소멸할 것으로 보였던 이들의 존재는 21세기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동안 존재감이 별로 없던 베르베르어와 문자인 네오-티피나그(Neo-tifinagh)<sup>2)</sup>, 이바디즘(Ibadism)<sup>3)</sup>, 베르베르인 등과 아랍과의 관계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 이베리아 반도의 베르베르 이슬람 왕조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안달루시아 왕조의 주축이 아랍·베르베르인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졌지만, 베르베르인만의 왕조가 이베리아 반도에 존재했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여러 베르베르인의 명칭, 즉 산하자 베르베르, 제나타 베르베르, 카빌리아, 샤우이아 등의 부족 이름을 구분해가면서 마그레브 초기의 베르베르 왕조 건설, 이후 베르베르인이 이베리아 반도에 진출하여 베르베르 왕조를 어떻게 건립하고 활동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안달루시아 문화권에서 베르베르의 존재를 조명하고, 안달루시아 문화권의 이해를 새롭게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베르베르어권 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sup>4)</sup> 자료 수집은 현지인 인터뷰와 문헌이 주를 이룬다. 현지 조사는 본 연

- 
- 1) 아랍어로 ‘해가지는 쪽’이라는 의미로 지리적 단위에서 북아프리카 지역을 일컫는다. 본고에서 언급하는 마그레브 지역은 이슬람교를 믿으며,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지중해와 인접해 있는 북아프리카 국가의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를 일컫는다.
  - 2) 언어 사용의 문제도 그렇지만 현재 공식어로 지정된 알제리와 모로코에서 베르베르 문자인 네오-티피나그는 불과 2-3년 전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다. 관공서는 물론, 홍보물, 언론 기사, TV 등에서 베르베르 문자를 보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이전에는 볼 수 없던 현상들이 마그레브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3) 마그레브에서의 이바디즘에 관한 내용은 II.2를 참조할 수 있다.
  - 4) 특히 베르베르어권의 카빌리아(Kabylia), 오레스(Aurès), 음자브(M'zab), 하이아틀라스(High-Atlas), 마라케시(Marrakechi), 테투안(Tetouen), 사하라의 타만라세트(Tamanrasset) 등에서 다년간 현지 연구(2005~현재)를 통해 자료, 특히 현지인들

구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였다. 왜냐하면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문헌 자료가 극히 한정되고, 내용 또한 파편적인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바누 이프렌의 가계도, 활동 지역 등을 토대로 바누 이프렌의 기원이 되는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조사하였으며, 이에 기반을 둔 내용을 토대로 연구를 추진하였다. 바누 이프렌에 대한 문헌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언론 기사와 일부 인터넷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현지 조사 내용을 보충해주는 유익한 자료가 되었다. 이처럼 확인된 자료는 현지 조사 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기관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sup>5)</sup>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바누 이프렌'이라는 베르베르 부족의 흔적과 활동을 마그레브 지역과 이베리아 반도에서 발굴하여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는 마그레브 초기 이슬람 왕조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베리아 반도 내 베르베르 왕조의 존재, 이후의 과정에서 안달루시아 문화가 어떻게 마그레브에서 개화해가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II. 베르베르와 바누 이프렌

오늘날 '베르베르'(Berber)라는 용어는 마그레브, 그중에서도 모로코와 알제리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되었다.<sup>6)</sup> 이미 모로코와 알제리에서는 공용어의 지위를 확보하였고, 특히 알제리의 경우 2018년 베르베르인의 신년인 '옌나예르'(Yennayer, 베르베르어로 Aseggwas Amaziy라고 한다)를 공식 축일로 인정하여 이슬람 국가에서 종교와 무관한 전통일이 축일이 된

---

의 녹취 자료를 확보하여 연구했다.

- 5) 현지조사에 대한 검증은 언론이나 특히 현지 지식인과 부족장 등을 통해 확인해 갔다. 연구자는 해당 지역의 상황과 특징에 대한 언론 기사를 수년 간 관찰하며 조사 내용을 보충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학술 논문으로서의 한계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는 추후 더 많은 문헌 자료 발굴을 통해 수정 보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 6) 튀니지 역사학자 페이살 쉐리프(Faysal Cherif 2019) 교수는 튀니지의 경우에도 베르베르 인구가 1%에 불과하지만 '아랍의 봄' 이후 시민사회 영역에서 베르베르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사례를 최초로 만들었다. 베르베르인이 많이 이주한 프랑스에서 베르베르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찾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은 직·간접적으로 마그레브 지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바누 이프렌(Banu Ifren)은 수십 개의 베르베르 부족 중 하나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은 마그레브와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화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바누 이프렌은 알제리의 안달루시아 문화 확장에 이바지한 바가 크고,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바누 이프렌이라는 이름으로 베르베르의 정체성을 살려놓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번 장에서는 베르베르의 전반적 의미와 바누 이프렌이라는 부족에 대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 1. 베르베르

‘베르베르’라는 말은 잘 알려져 있듯이 서구인이 마그레브 토착민에 대해 타자화해서 부른 용어이다. 마그레브의 토착민인 베르베르인은 스스로를 ‘자유로운 사람’을 의미하는 ‘아마지그’(Amazigh)라 부른다(Gabriel Camps 2007: 96). 역사 이래로 다양한 디아스포라를 형성한 베르베르인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통해 유럽으로 확산되고 그 결과 베르베르권(Berberophone), 혹은 베르베르어권은 오늘날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 마그레브 베르베르어권 출신자를 포괄하게 된다. 마그레브 지역에서는 ‘섬’과 같이 분포해 있고, 유럽 등의 해외에서는 영토가 없지만 다양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결속을 다져가고 있다.<sup>7)</sup>

베르베르인은 20세기 후반 들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운동을 전개해가고 있다.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온건하게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영향력은 지역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 결과 오늘날 이슬람권인 마그레브에서 베르베르어와 문화는 더 이상 ‘주변부’에 머무르지 않고 ‘중심부’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추세이다. 그만큼 마그레브 지역의 ‘특

7) 연구자가 프랑스 파리의 베르베르공동체(Centre culturel franco-berbère, CCFB)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프랑스 전역에 약 100여 개의 베르베르공동체가 있다고 한다. 이들 공동체는 현재 베르베르어문화 운동을 비롯하여 프랑스 내에서 여성, 이민자, 난민 등의 ‘소수자’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로 베르베르어와 문화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마그레브 전역에 '섬'과 같이 분포해 있는 베르베르 문화는 오랜 역사적 과정에서 '교차와 혼성'을 통해 형성되었다. 특히 아랍의 정복 과정 이후 베르베르어·문화는 통일된 단위를 형성하지 못했다. 알제리와 같은 국가에서는 독립 이후 아랍·이슬람화 정책을 실시했고, 프랑스어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소수어'인 베르베르어까지 배제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후의 정부도 베르베르 집단 내의 균열을 도모하여, 알제리 내 베르베르어권 지역은 각기 상이한 노선과 방향을 취하며 대아랍과의 '관계'(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런 기류에서 상당한 변화가 감지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이다. 이미 모로코와 알제리에서는 대다수 베르베르 화자들을 고려하여 국어(national language)로 지정한 이후 2011년과 2016년 각각 공용어(official language)로 격상시키며 사회 변화를 이끌어갔다. 게다가 알제리의 경우 베르베르 신년이라 할 수 있는 '엔나예르'<sup>8)</sup>를 공식 축일로 인정하여 지역의 정체성 재확립이라는 차원에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임기대 2018).

이처럼 '베르베르'라는 단어는 오늘날 마그레브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 사는 베르베르인을 하나로 묶으며 동질성을 찾게 해주고 있다. 이들은 지역에 따라 혹은 부족에 따라 정체성을 달리한다. 가령 모로코 북쪽 산악지대의 리프(Rif)족은 미들 아틀라스(Middle-Atlas)의 베르베르 부족 솔뤼흐(chleuh)와는 정체성과 관련한 운동 성격이 다르다. 알제리 동부의 카빌리(Kabylie)는 바로 인접해 있는 오레스(Aurès) 지역의 샤우이(Chaoui)와 정체성을 달리한다. 이들 모두는 사하라 북쪽 음자브(M'zab)지역의 모자비트족

8) '나예르'(Nayer)라고도 일컫는 '엔나예르'는 베르베르 공동체에서 두 가지의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새해의 첫해 날', 즉 Ixef Usgwas과 '월의 첫해 날'을 의미하는 Yen Ayer가 그것이다. 둘 중에 두 번째 단어의 의미는 베르베르인이 중시하는 농력(농업 달력)을 일컫는다. 농력은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영향을 주는 연중 계절에 시간을 설정해 놓는다. 베르베르인은 계절에서 계절로의 이행 과정을 중시하며, 이는 마그레브 베르베르인의 삶 속에 깊이 투영되어 있다. 실제로 여러 베르베르 공동체에서는 봄의 첫날, 여름의 첫날 등과 같이 첫 날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관련된 문화 축제를 지역의 곳곳에서 볼 수가 있다. 임기대,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베르베르'(Berber) 정책이 마그레브 지역의 문화 변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 53권, 제 1호, 2018, 220쪽.

이나 사하라의 투아레그족과도 정체성을 달리한다. 이렇듯 다양한 성격을 드러내는 베르베르인이지만 이를 묶어주는 하나의 공통점은 언어이다. 이들의 언어는 방언으로 존재해왔지만, 정체성 찾기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표준문자인 네오-티피나그(Neo-tifinagh)를 고안해내었다. 문자표기 방식이 지역별로 다르게 존재하지만 적어도 현대 사회 들어 공통의 문자를 사용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sup>9)</sup>.

베르베르인이 오늘날 하나의 인종으로 표준화된 동질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면 이슬람 초기 마그레브 지역의 이슬람화에 가장 큰 공헌을 한 부족은 베르베르인이다. 개종한 베르베르인은 이후 이베리아 반도를 이슬람화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하지만 이들이 마그레브와 안달루시아를 이슬람화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이 알려졌을 뿐, 이들이 마그레브에서 건립한 왕조와 이베리아 반도에서 각각 건립한 왕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런 점은 과거와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는 이슬람화된 베르베르인의 정체성을 간과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 베르베르인은 마그레브 이슬람 초기 왕국을 구축한 부족이고, 이들이 받아들인 이슬람의 종파는 오늘날의 마그레브 국가에서는 수용되지 않는 종파이다. 이런 이슬람을 초기에 받아들이며 이베리아 반도 정복에 나섰고, 이후 이베리아 반도와 마그레브 지역에서 자신들이 수용한 이슬람 정신과 사상에 따라 왕조를 세우고 정복해갔다.

본고에서 언급하는 이슬람의 바누 이프렌은 오늘날의 시점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베르베르 부족의 일파이다. 하지만 이 부족의 존재감을 이해하는 것은 마그레브 초기 이슬람과 이베리아반도의 안달루시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이슬람 전파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해 보인다. 그들의 활동은 마그레브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고, 이는 결국 마그레브 기층문화에는 개별 세력의 문화적 다양성과 함께 지중해와 사하라 일대 아프리카를 아우를 수 있는 동질성도 생성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9) ‘네오-티피나그’는 약 40여개 이상의 베르베르어 방언을 통일시키기 위해 고안해낸 베르베르 문자 체계이다. 7개의 방언 문자를 토대로 오늘날 표준 문자로 정하였다. 문자 체계의 기원과 7개의 방언 문자, 오늘날의 문자 등의 내용은 임기대(2013)를 참조할 수 있다.

## 2. 바누 이프렌

‘바누 이프렌’(Banu Ifren)은 아랍의 마그레브 이슬람화 과정에서 이슬람을 초기에 받아들이고, 안달루시아 문화를 개화시킨 베르베르의 한 일파이다(Frederic P.Miller, Agnes F.Vandome, John McBrewster 2010). 오늘날 마그레브의 이슬람은 일반적으로 수니파 이슬람국가로 분류되지만, 마그레브 초기 이슬람 왕조는 카와리지파(Khârijites)에 기초한 왕조가 주류를 이루었다(김정위 2002)<sup>10)</sup>. 오늘날까지 음자브(M'zab)지역, 그리고 튀니지의 제르바(Djerba)섬, 리비아 북서부 지역의 나푸사(Nafûsa)에는 여전히 카와리지의 분파인 이바디즘(Ibadisme)이 깊게 자리하고 있지만<sup>11)</sup>, 이들이 어떤 경로로 마그레브 지역으로 왔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확한 정보가 없다(Virginie Prevost 2012).

마그레브의 어떤 역사가나 정부도 이슬람을 언급하며 카와리지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을 정도로(Chikh Bekri 2005:35), 이 용어는 마그레브에서는 잘 언급하지 않는 용어이다. 이슬람 초기 마그레브 토착민인 베르베르인은 우마이야(Umayyad, 661-750) 왕조의 전제적 통치방식과 아랍 우월주의에 반감을 갖고 대항하였다(손주영 1997:172)<sup>12)</sup>. 이런 기조는 실제 지금까지 음자브와 같이 일부 지역에서 관철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특히 카빌리(Kabylie)의 경우 자치 정부를 주장하기까지 한다.<sup>13)</sup>

10) 이슬람의 한 분파로 극단적인 평등주의를 지향하고 주로 하층민들과 흑인 노예들의 지지를 받았다. 일부에서는 최초의 이슬람 극단주의로 보기도 한다. 김정위, 『이슬람 사전』, 서울. 학문사, 2002, 666쪽.

11) 연구자가 이 지역민들과 모자비트 부족장과의 현지(2019.07.18.~2019.07.31.) 인터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음자브 지역의 이바디즘 모자비트족은 자신들이 카와리지파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하며, 자신들을 수니파 계열로 분류하길 원한다.

12) 손주영은 이런 현상을 ‘앗 타아쑤브 알 까발리’(al ta'asub al-qabali, 부족 배타주의)를 현상 때문이라 한다. 당시 무아이야 왕조가 지배 지역을 통치했던 방식이다. 손주영, 『이슬람 칼리파制史: 이슬람 정치사상과 역사』, 서울, 민음사, 1997, 164쪽.

13)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퇴진(2019.03.02.) 이후 베르베르인은 국민이 주도하는 정부, 베르베르인이 주도하는 정부 수립을 위해 38주(금요일) 이상을 시위하고 있다. 카빌리의 경우 아예 자치 정부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우마이야 왕조에 맞서 최초로 세워진 마그레브 왕조는 수프리즘(Soufrism, 742-790)왕조이다. 흔히 알려진 마그레브 최초의 왕조인 로스탐(Rustamides 혹은 Banû Rustam, 767-909)<sup>14)</sup> 보다도 먼저 세워진 왕조로 바누 이프렌의 부족장인 아부 꾸라(Abou Qurra)가 오늘날의 틀렘센<sup>15)</sup>에 설립하였다(Ibn Khaldoun 2003: 849). 이렇듯 마그레브 최초의 이슬람 왕조인 수프리즘 왕조와 바누 이프렌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누 이프렌은 베르베르어로 Aït Ifren, 티피나그(Tifinagh)로는  $\alpha \ S^{\circ}HO^{\circ}i$ 으로 표기하며, 3개의 제나타 베르베르 연합체 중 하나에 속한다.<sup>16)</sup>

바누 이프렌은 오늘날 알제리 동부의 고펅원지대 오레스(Aurès) 지방에서 살고 있던 부족을 일컫는다. 이들은 오늘날에는 샤우이아(Chaouia)라고 불리는 베르베르인 중 한 부족으로 아랍의 문명, 즉 이슬람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바누 이프렌은 베르베르어로 ‘ifri’<sup>17)</sup>가 그 어원으로 이프렌은 ‘동굴’이란 뜻을 의미한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이프렌이 단수형인 ifri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으며, 대부분의 인류와 마찬가지로 선사시대 이들은 ‘동굴’에서 살았던 사람을 일컫는

- 
- 14) 일반적으로 알제리 최초의 이슬람 왕조로 알려져 있다. 페르시아 출신의 이맘 이븐 루스탐(Ibn Rustom)이 마그레브에 정착하여 카와리지 왕국을 세웠다. 오늘날의 티아렛(Tiaret)에 수도를 둔 루스탐은 철저히 금욕 생활을 하면서도 법해석과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끊임없는 종교적 열정을 추구한 신정 공동체로 체벌과 투옥 같은 수단을 통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행동을 강제했다. 아이라 M. 라피두스 『이슬람의 세계사 1』, 서울: 신연성역, 이산, 2009, 507쪽.
- 15) 틀렘센(Tlemcen)은 수도 알제에서 약 600km 서쪽에 위치해 있다. 틀렘센은 알제리 내 안달루시아 문화의 중심 도시이다. 2011년 이슬람문화 수도로 선정될 만큼 알제리 내의 독특한 이슬람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이다.
- 16) 제나타 또한 일개 부족이 아닌 여러 베르베르 부족들이 뭉친 연합체에 속한다. 오늘날 잘 사용하지 않는 제나타(Zenata), 산하자(Sanhaja), 마스무다(Masmuda) 등의 연합체인데, 이는 중세 시대 알모라비드나 알모하드 왕조와 같이 거대 왕조를 이루기 위해 연합한 부족을 일컫는다. 이들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도 했지만 부족의 특성상 서로 반목하기도 하였고 오늘날에는 대체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다. Gabriel Camp, *Les Berbères: Mémoire et Identité*, France, Actes Sud, 2007, 132-134쪽.
- 17) ‘ifri’는 오늘날 알제리에서 가장 유명한 생수 이름이기도 하며, 지역은 카빌리의 베자이아(Bejaïa)에 있다. 오레스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베르베르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다.



다.<sup>18)</sup> 또한 아프리카의 어원인 이프리카야(ifriquia)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프렌은 어원상 아프리카적 특성을 담아내기도 한다(김광수 2019)<sup>19)</sup>.

고대부터 바누 이프렌은 북아프리카, 즉 마그레브 지역의 금 무역을 관할했으며, 로마 시대에는 로마화 된 사람과 로마화 되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하였다. 이들 각각을 아프리스(Afris)와 모레스(Maures, 무어인)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했다. 마그레브에서 반달족을 물리친 이들은 아랍이 들어오면서 이슬람을 받아들였지만 우마이야의 폭정에 맞서 카와라지파의 수피리즘을 재빨리 수용하였다. '베르베르인'이 '자유로운 사람'을 일컫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종교적으로 이교도가 많았던 그들은 우마이야 왕조의 폭정과 차별에 맞섰다. 또한 아바스(Abbasid, 750-1258)<sup>20)</sup>왕조에도 정면으로 맞섰다. 오늘날 리비아에 있던 제벨 나푸사(Jebel Nafūsa)<sup>21)</sup>의 카와라지파와도 연합한 바누 이프렌의 부족장 아부 꾸라는 이베리아반도의 말라가(Malaga)와 카이루안을 정복하기도 했다. 당시 오레스 지역의 베르베르 부족장인 카이나(Al Kahina)<sup>22)</sup>와 동맹을 하고서는 카이루안을 정복하기도 했다.<sup>23)</sup>

이후 수도였던 틀렘센으로 돌아와 아부 꾸라는 동진해 오턴 이드리스(Idriss,

---

18) <https://fr.wikipedia.org/wiki/Banou>Ifren>. '이프리'의 다양한 어원에 대해서는 *El Watan*, "Afrique, quel est ton nom ?", (2017.11.09.)

19) '이프리카야'는 오늘날 아프리카 대륙을 지칭하는 말이 아닌 튀니지와 리비아 일부, 그리고 알제리 일부 지역을 포함한 지역을 일컫었다. 김광수, 「사하라 무역로와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 문명의 발전」,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 56권 제 1호, 2009, 55쪽.

20) 아바스 왕조는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린 후 1258년 몽골족의 침입으로 몰락할 때까지 아랍 제국을 다스렸다. 흔히 오늘날 아랍권이라고 말할 때의 지형도를 처음으로 형성한 왕조이기도 하다.

21) 리비아 서북부 지역의 산악지대이다. 베르베르인이 살고 있으며, 현재는 이바디즘으로 개종한 부족이 살고 있다. 모자비트족과 더불어 마그레브의 몇 안 되는 이바디즘 신봉자이다.

22) 마그레브 지역 베르베르운동의 최초의 여전사로 기록되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오늘날 리비아와 인접한 알제리 오레스 지역의 샤우이족 출신이다. 바트나(Batna)를 중심으로 켈셀라(Kenchela) 등의 샤우이족 거주 도시들이 있다. 그녀의 사망 이후 이슬람으로 개종한 샤우이족은 급격히 아랍화되며, 세를 확장해갔다.

23) 이븐 할둔(Ibn Khaldoun)은 바누 이프렌이 동부지역의 바트나까지 간 데에는 자신들의 조상이 이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http://www.wikiwand.com/fr/Banou>Ifren>

788-974)왕조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아부 꾸라는 오늘날 알제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로스툼 왕조보다 자신들과 때로는 경쟁하기도 했지만 자신들이 신봉한 이슬람의 수프리즘을 더 인정해준 이드리스 왕조에 왕조를 넘겨주었다.<sup>24)</sup> 790년 이드리스 왕조에 넘겨주고, 이후 서진해 온 파티마 왕조에 밀려 바누 이프렌은 새로운 세력 결성을 모색하였다. 바누 이프렌은 모로코 라바트 인근의 살레(Salé)와 하이 아틀라스와 미들 아틀라스에 주로 거주한 타드라(Tadla)와 연합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11세기 들어서는 이베리아 반도를 처음으로 통일한 코르도바 총독과 연합하여 큰 세력을 형성하였다.

바누 이프렌은 자신들이 정복하여 세운 도시의 주인이 되고, 아랍족인 바누 힐랄과 함마디트 왕조 연합체와도 싸웠다. 이후 카와리지파의 이데올로기 색채를 지우고 수니 말리키파 이슬람으로 무장한 서아프리카쪽의 알모라비드 왕조(Almoravid, 1040-1147)가 번성하면서 바누 이프렌 또한 이 왕조에 흡수되었다. 알제리에서 시작하여 모로코로 확장한 이후 더 큰 왕조를 형성하며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아이라 M.라피두스 2009: 513). 모로코의 마라케시와 이베리아 반도의 코르도바의 문화적 자산과 경제적 번영을 이뤄나갔으며, 틀렘센의 대모스크 건설(1136년), 페스의 카라위인 모스크를 안달루시아 양식으로 재건하기도 했다. 중세시대 들어서는 마린 왕조(Marinid, 1244-1465)를 마그레브 중부 지역에서 몰아내고 틀렘센에 안달루시아 왕조인 자야니드 왕조(Zayyanid dynasty, 1235-1556)를 세우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자야니드 왕조는 초기의 이슬람 수프리즘의 흔적을 완전히 없앤 안달루시아 이슬람 왕조였다(임기대 2019). 이들 안달루시아 왕조는 레콘키스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스페인이 마그레브에 진출하기 전까지 지역의 패자로 다시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레콘키스타 이후 바누 이프렌을 비롯한 무어인은 자신들의 고향과도 같은 틀렘센으로 다시 들어와 안달루시아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약 50,000명에 달하는 무어인이 틀렘센에 정착했으며 이들은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

24) 이드리스 왕조에 넘어가기 전 수프리즘은 베르베르의 자나타족인 메크나사(Meknassa)를 통해 마그레브 지역으로 확산해갔다. 메크나사는 알제리 동부의 오레스(Aurès) 지역에 살고 있던 샤우이족의 중세 시대 이름으로, 초기 이슬람 정복기 타리크 이븐 지야드가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할 때 동참하여 선두에 섰던 부족이다. <https://fr.wikipedia.org/wiki/Meknassas>

전을 완벽하게 재현해 놓은 엘메슈아라(El Méchouara)궁과 모스크를 틀렘센에 재현해 놓으며 안달루시아 문화를 이식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sup>25)</sup> 지중해 문명 교류가 단순히 상호 교차하기보다 순환 형태의 특성(윤용수 2017: 31)을 보이는 대표적인 사례로도 보인다.<sup>26)</sup>

사진 1. 틀렘센의 이슬람 문화 유적<sup>27)</sup>



엘메슈아라 궁



만수라의 미나렛

### III. 바누 이프렌의 안달루시아에서 위상

#### 1. 안달루시아의 분열

바누 이프렌이 이베리아 반도에 처음 진출한 것은 후기 우마이야 왕조(756-1031)가 들어서서 10세기 코르도바에서였다. 두 번째의 대규모 진출은 10세기 말 우마이야 왕조가 세운 알-안달루시아(Al-Andalus)의 베르베르 민병대에 대거 참여한 때였다. 초기 진출한 제나타의 바누 이프렌과 달리 두 번째 대거 참여한 바누 이프렌은 별도의 토지를 받았으며, 후손들은 알-안

25) 특히 이베리아 반도의 타이파 왕조는 바누 이프렌이 건설한 왕조로 이들은 레콘 키스타가 진행된 이후 모로코를 비롯하여, 알제리의 틀렘센에 대거 들어와 정착해 살아간다. 자세한 내용은 III.2 참조.

26)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추후의 추가적인 사례 및 문헌 등을 통한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27) 게재한 사진은 연구자가 직접 찍은 사진이므로 저작권과는 무관함을 밝힌다.

달루시아의 베르베르 민병대 중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었다. 알-안달루시아에서의 반란, 즉 ‘피트나’(fitnah)<sup>28)</sup>가 발생하곤 했을 때 제나타 베르베르계인 바누 이프렌이 주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는 알 라흐만 3세(Abd al-Rahman III, 889-961)가 지배했던 시기였고, 이슬람의 황금기를 확립하여 ‘코르도바의 영광’을 1세기 이상 지속시킨 시기였다.<sup>29)</sup> 하지만 그의 재임 기간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위기 상황도 여러 번 있었다. 내부의 반발도 잠재워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알 라흐만 3세는 베르베르인 병사들과 사칼리바(saqaliba)<sup>30)</sup>를 모집하여 왕조를 안정시키고 안달루시아 전역을 장악하려 했다. 이후 아바스 왕조와 파티마 왕조에 서신을 보내 자신을 칼리프 선언하며, 후기 우마이야 왕조는 칼리프 정립 시대가 되고, 왕조의 안정을 위한 병사들과 징집병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후 등장한 알모라비드 왕조는 바누 이프렌과 연합하여 안달루시아를 장악해갔다. 이들은 이베리아 반도 이슬람의 자유로운 사상과 자유분방한 사회를 정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왔다(마이크 모건 2009: 115). 주축 세력이자 이슬람 원리에 충실했던 제나타 베르베르의 바누 이프렌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계속 영향력을 키워왔고, 왕조의 핵심이었던 서아프리카 및 사하라의 산하자 베르베르인은 마라케시를 중심으로 한 마그레브 지역에 주로 남았다. 이후 산하자 베르베르인은 서아프리카의 가나왕국과 대결하여 몰락시킬 정

28) 이슬람에서 정당한 군주에 대한 어떠한 선동이나 반란을 가르킨다(김정위 위의 책, 658쪽). 특히 수니와 시아파 간의 내전이나 시아파 간의 종교적 분열을 초래 한 이슬람 초기의 내분을 가르킨다(다음백과 참조). 이슬람의 역사에서는 여러 피트나가 있었는데, 1009년에서 1031년 있었던 알 안달루시아의 피트나도 이에 해당한다. <https://fr.wikipedia.org/wiki/Fitna>

29) 알 라흐만 3세 시대에 왕실 도시인 메디나 아자하라가 만들어지고, 인구는 거의 50만 명에 달했다. 300개의 목욕탕과 300개의 모스크, 50개의 병원, 수준 높은 도서관은 유럽보다 더 많은 책을 소장하여 유럽에서 가장 크고 발달한 국가가 되었다. 마이클 모건, 『잃어버린 이슬람: 서양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이슬람 문화의 황금기 역사』, 서울, 김소희 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114쪽.

30) 주로 유럽에서 해적질 혹은 전쟁을 통해 납치된 슬라브족 혹은 동유럽 출신의 노예, 그리고 용병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 용어는 중세의 북아프리카를 비롯한 아랍 세계, 이베리아 반도의 안달루시아, 시칠리아 등에서 사용되었다. 이들은 이슬람 세계에서는 주로 하인, 하렘, 기술자, 군인, 칼리파 친위대 등의 직업에 종사하였다. <https://en.wikipedia.org/wiki/Saqaliba>

도로 막강한 힘을 과시하며 사하라와 서아프리카 일대까지를 평정하였다.

무역을 생업으로 삼고 있던 산하자족이 사하라 북단 무역로를 장악했던 제나타 베르베르인과 연합하여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했지만 제나타 베르베르인은 주로 이베리아 반도에 남아 현지 문화에 흡수·동화되었다<sup>31)</sup>. 바누 이프렌은 아랍인과의 영토 분배에서도 공평하지 않으면 반발하였다. 바누 이프렌은 초기 수프리즘의 전통이 미약하게 남아 여전히 원리주의와 평등주의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시리아계 아랍 군대에게 진압되기도 했지만, 워낙 강하게 반발하다 보니 봉토가 주어지기도 했다. 아랍인이 누린 혜택과 마찬가지로<sup>32)</sup> 봉토를 받으며 산재하게 된 제나타 베르베르의 바누 이프렌은 이베리아 반도 곳곳을 이슬람화하기 시작했다.

안달루시아 지역은 이슬람화 현상이 지속했지만, 동시에 여러 부족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콘비벤시아'(convivencia) 전통이 깊게 자리하는 지역이 되었다. 실제 안달루시아의 코르도바, 세비야, 그라나다 등의 여러 도시를 보면 '콘비벤시아' 전통이 외관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페인어로 '공존'을 나타내는 '콘비벤시아'는 안달루시아에 거주했던 무슬림, 기독교인, 유대인, 베르베르인 등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독특한 융합 문화를 가꾸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콘비벤시아' 전통도 11세기 들어 조금씩 균열을 보인다. 칼리프가 중앙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면서 지방 총독들이 독립을 선언했고, 아랍 부족 또한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는 지방 정권으로 교체되었고, 칼리프제 또한 폐지되었다. 탈 중앙화가 가속화하면서 결국 안달루시아에 '타이파'(Taifa)라 불리는 군소

31) 이 두 부족은 실상 수단 지역에서 강성한 가나 왕국에 밀려나면서 연합체를 이뤄갔고, '무라비툼' 운동을 전개해갔다. 오늘날 벨목타르가 지휘하는 서아프리카 테러집단 '알무라비툼'이 주창하고 있는 역사적 기원도 이 당시의 운동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베르베르 이슬람 왕조 복원을 주창하고 있다. 여실적으로 '알무라비툼'을 이끌고 있는 벨목타르는 음자브 지역 출신이고, 그는 베르베르인이 아닌 아랍인 참바(Châamba)족이다. 임기대, 「프랑스 내 '베르베르인'의 이민 과정과 그 위상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제 42집, 2016, 132-163.

32) 아랍인은 피보호민으로부터 노예를 생포하고 용병을 고용하고 현지인과 통혼을 했다. 이베리아반도에서 9세기는 아랍어가 광범위하게 퍼져 마그레브 지역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개종하게 되자 원래의 아랍 엘리트와 스페인 사람 간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그 결과 흔히 말하는 '아랍-스페인'사회가 탄생하게 됐다.

제왕이 난립하게 된다(아이라 M.라피두스 2009: 524). 아랍인, 베르베르인, 사칼리바의 슬라브인 병사와 지방 엘리트가 정권을 잡았으며, 각 지방은 독자적인 군대와 궁정, 행정체계를 갖춘 독립국을 형성하였다. 그렇다고 이들이 세운 지방 정부가 이슬람법과 무슬림의 정체성을 내뿜진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이슬람과 무슬림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며 문화를 꽃피워갔다.

같은 시기 이베리아 반도에서 바누 이프렌은 반기를 들지는 않았다. 하지만 칼리파제가 붕괴하면서 바누 이프렌은 안달루시아 내에서 독자적인 지역을 형성하고 갖출 수가 있었다. 사칼리바가 남동부의 데니아(Denia)에 지방 정부를 세우고, 아랍인이 코르도바와 세비야, 사라고사에 지방 정부를 세웠다.<sup>33)</sup> 베르베르인은 그라나다에 국가를 세우기도 했는데, 이른바 그라나다 타이파(Taifa of Granada, 1013-1145)라 불린 왕조가 그것이다. 오늘날의 그라나다 지역에 해당하는 왕국인 그라나다 타이파는 북아프리카의 카빌리 지역에서 용병으로 참여한 베르베르인으로 구성되었다가, 결국 북아프리카의 지리드 왕조(Zirid dynasty, 973-1148)<sup>34)</sup>가 1090년까지 대체 통치하였다. 반면 베르베르 제나타의 바누 이프렌은 론다(Ronda)에 지방 왕조 론다 타이파(Taifa of Ronda)를 수립하였다. 비록 그라나다 타이파에 비해서는 작은 왕조였지만,<sup>35)</sup> 베르베르 출신의 바누 이프렌은 독자적 왕조를 구

33) 알모라비드 왕조가 안달루시아 지역을 평정하기 전인 1091년까지 24개의 군소 왕국들이 난립하였다. 레콘키스타를 도모한 북부의 기독교 세력은 안달루시아 지역이 통일된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에 더 없이 좋은 호기를 맞게 된다. 타이파 왕조들은 정치적으로는 분열되어 있었지만 찬란한 이슬람 문화를 일구었다. 칼리 궁에서 하던 방식대로 시인들을 환대했고 철학이나 자연과학, 수학 연구를 장려하여 문화를 번성시켜, 마이클 모건(위의 책: 115)의 표현에 의하면 ‘창조성의 최고 경지’를 드러낸 시기였다.

34) 바누 지리(Banu Ziri)가 오늘날의 알제리에 건립한 베르베르 왕조이다. 마그레브 동부 파티마 왕조의 지배 하에 있던 이들은 자치권을 확보해가면서 독립적인 왕조를 구성했다. 중세 시대 마그레브 최초의 베르베르인 왕조로 분류되며 이후 알모라비드 등의 거대 왕조의 출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지리드 왕조 시기 마그레브는 이슬람 수니와 시아, 이바디즘이 공존했고, 기독교와 유대교가 공존한 시기였다. [https://en.wikipedia.org/wiki/Zirid\\_dynasty](https://en.wikipedia.org/wiki/Zirid_dynasty)

35) 그라나다 타이파와 론다 타이파는 같은 베르베르인이지만 전자가 산하자 베르베르 계열에 속한 것과 같이 후자(론다 타이파)는 제나타 베르베르 출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언어적으로 상이하다는 것은 아니며, 마그레브 지역에서의 차이(유목과 정주, 지역, 생활상 등)에 따른 것임을 지적하고

축하여 탈중앙화 된 상황의 이베리아 반도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 고자 했다.

## 2. 바누 이프렌과 론다 타이파

카와리지파의 이념을 지워가면서 이베리아 반도에 정착한 바누 이프렌은 사하라 유목민 출신의 베르베르인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 주로 코르도바 칼리프 체제에서 치안을 맡았던 이들은 봉토를 받아 론다에 타이파를 건설했지만 아주 단명한 왕조를 이루는 데 그쳤다. 1039년 왕조 건설을 시작하여 1065년 세비아 타이파에게 넘어갈 때까지의 26년 동안 존속했고, 세비아 타이파의 지배를 1091년까지 받았다.

론다(Ronda)는 안달루시아 도시 말라가(Malaga) 서쪽으로 약 100km 지점에 있는 도시로 '그라나다의 장미'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우리에게는 투우의 발상지로도 알려진 론다에는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산 것으로 추정된다. 페니키아인은 이곳에 아시니포(Acinipo)라는 이름의 마을을 설립하기도 했다. 기원전 3세기 고대 로마 시대에 요새화되었고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대에는 도시 칭호를 받기도 했다.<sup>36)</sup> 이와 같은 역사적 흔적이 있던 곳에 바누 이프렌이 들어와 통치하면서 수도로 자리매김하였다(Frederic P. Miller, Agnes F. Vandome, John McBrewster 2010: 79). 바누 이프렌은 이슬람 건축유산의 대부분을 그대로 수용하고 도심 속 문화에 그대로 적용하였다. 살리벤 샤리프 알-룬다(시인 Salih ben Sharif al-Rundi, 1204-1285)와 수피학자 이븐 압바드 알-룬다(Ibn Abbad al-Rundi, 1333-1390)는 론다에서 태어나 론다를 대표하는 유명 인물들이다.<sup>37)</sup> 나름 이슬람에 관한 훌륭한 문화유산을 일궈가기도 한 것이다.

론다 타이파는 이베리아 역사 속에서는 도심 속의 흔적 이외에는 남겨놓은 사료가 거의 없다.<sup>38)</sup> 게다가 바누 이프렌이 설립한 왕조임에도 불구하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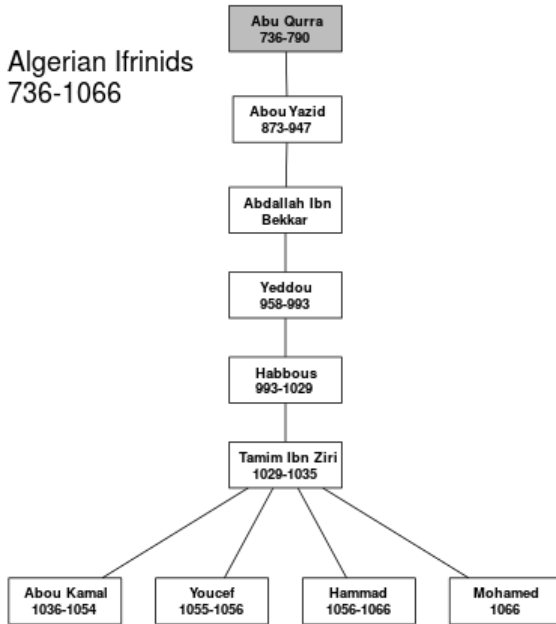
자 한다.

36) <https://en.wikipedia.org/wiki/Ronda>

37) 론다가 배출한 두 명의 인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https://www.rondatoday.com/ronda-in-the-kingdom-of-granada/> 참조.

바누 이프렌과 관련된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단지 틀렘센의 수프리즘 왕조를 건설한 아부 꾸라부터 시작된 가계도를 통해 마그레브 왕조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표 1. 바누 이프렌의 가계도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Banu\\_Ifran](https://en.wikipedia.org/wiki/Banu_Ifran))

- 38) 연구자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룬다 타이파와 관련한 문헌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다. 연구자는 틀렘센을 중심으로 활동한 바누 이프렌의 인물들, 이후 자야니드 시대 들어서 왕조를 지배한 인물 등과 관련한 자료를 통해 이 가계도의 인물이 안달루시아에서 활동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위에 제시한 가계도는 바누 이프렌 출신 인물의 활동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마그레브 지역에서 수프리즘에 기반한 바누 이프렌은 표1과 같은 가계도를 이루었으며 안달루시아의 론다 타이파는 수프리즘 왕조 창건자이자, 틀렘센을 기반으로 초기 이슬람 왕국을 건설한 아부 꾸라의 후손들로 이루어졌다. 론다 타이파가 존속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왕은 아부 누르(Abu Nour)였다. 아부 누르가 통치하였던 시기에 론다 타이파가 어떻게 번영하고 쇠락해갔는지를 보기 위해 바누 이프렌 가계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마그레브 지역에서 어떻게 안달루시아로 건너왔고, 이베리아 반도에서 활동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아부 꾸라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카이루안을 정복하여 알제리 동부와 튀니지에서 이름을 떨쳤던 샤우이족 출신의 베르베르인이다. 아부 예두(Abu Yeddou)는 페스에서 활동하다 안달루시아로 넘어와 안달루시아의 이슬람화에 힘을 기울였다. 이들의 경로를 요약하자면 오레스지역에서 틀렘센으로, 이후 모로코의 페스를 경유하여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온 것이다. 그렇다고 이 경로만이 유일한 이베리아 진출 경로는 아니었다. 어쨌든 알 만수르(978-1002) 시대가 끝나고 타이파 시대가 되면서 만수르 시대에 활약했던 아부 예두는 술라임만 벤 알-하카ם(Sulayman ben al-Hakam, ?-1016)을 지지하였다. 하지만 코르도바와 전투를 하면서 승리는 했지만<sup>39)</sup>, 전투에서 사망한 아부 예두를 이을 후계자가 마땅치 않자 그의 최측근이자 덕망이 있었던 아부 누르(Abu Nour)가 안달루시아 바누 이프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파편적으로 흩어져 부족의 힘을 모을 수 없던 바누 이프렌이 아부 누르를 중심으로 힘을 모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부 누르는 술라임만 벤 알-하카ם을 지지한 대가로 그라나다와 코르도바의 중간 지점에 있는 하엔(Jaen) 지역을 봉토로 받으면서 세를 확대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론다 타이파의 왕(1014-1058)이 되었다. 역사는 아부 누르를 탐욕으로 가득한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Ibn Khaldoun 2003). 하지만 그는 여느 베르베르인과 마찬가지로 부족을 위해서는 용감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군주였다. 바누 이프렌 출신의 베르베르인 부하 병사들도 용맹스러웠

39) 전투는 단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몇 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런 외중에 술라임만 벤 알-하카ם은 베르베르인 바누 이프렌의 도움을 크게 입게 된다.

[https://en.wikipedia.org/wiki/Sulayman\\_ibn\\_al-Hakam](https://en.wikipedia.org/wiki/Sulayman_ibn_al-Hakam)

기 때문에 아부 누르가 강한 왕이 될 수 있는 받침이 되어 주었다. 아부 누르의 지도력과 그를 받쳐주는 바누 이프렌 병사들에 힘입어 아부 누르는 재임 당시 협곡과도 같은 론다를 방어 도시로 요새화시켰으며, 오늘날의 중요한 건물들을 하나씩 완성해갔다. 도심의 모습은 아래 사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제리 콩스탕틴의 전경과 놀라울 정도의 흡사함을 보여주고 있다.<sup>40)</sup>

사진 2. 론다와 콩스탕틴<sup>41)</sup>



론다시 전경

콩스탕틴 전경1

콩스탕틴 전경2

론다 타이파는 아부 누르 시대 들어서야 도시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 수 있게 된다. 특히 아부 누르 시대는 확장과 재건의 시기였다. 방어 도시로서의 모습이 갖춰졌고, 남쪽의 알모카바(Almocábar)와 씨자라(Xijara)성문이 만들어지면서 도심의 성벽 구축이 완성되었다(John Jil 1996).

아부 누르는 인접해 있는 타이파 왕조들과는 조심스런 관계를 맺었다. 세비야 타이파가 론다 타이파를 점령하려 했기 때문에 소국인 론다 왕조로서

40) 콩스탕틴의 경우 로마 시대 도시의 모습이 만들어졌다. 로마의 속국인 누미디아(Numidia, 기원전 300-기원전 46년)의 수도로, 당시에는 시르타(Cirta)로 불렸었다. 오늘날에는 알제리 동부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알제리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다. 로마 시대 건설된 도시 콩스탕틴을 모방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콩스탕틴이 베르베르어권 오레스 지역에 인접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바누 이프렌과의 연관성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 보인다.

41) 본고에서 게재한 콩스탕틴 사진은 연구자가 직접 찍은 사진이므로 저작권과는 무관함을 밝힌다. 론다의 경우 <http://ahmed.benzelikha.over-blog.org/article-une-petite-constantine-en-andalousie-58186992.html>에서 발췌함

는 늘 생존의 문제를 생각해야 했다. 술라임만 벤 알-하카미가 권력을 상실한 1016년 이후 아부 누르는 생존을 위해 코르도바의 여섯 번째 칼리프였던 알리 벤 함무드 알-나시르(Ali ben Hammud al-Nasir, ?-1018)를 새로운 칼리프로 인정하기도 했다. 세비아 타이파와 같이 주변 타이파를 공격하려 한 왕조와는 달리 자신들과 같은 소왕조를 보호해주려 한 함무디트(Hammudites, 1016-1058)왕조와 연합하기도 했다. 벤 함무드 알-나시르가 함무디트 왕조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연합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1026년 Yahyâ al-Mu'talî (미상-1035) 칼리파가 코르도바에서 왕위를 찬탈당하고 말라가 타이파를 통제하게 되었을 때, 아부 누르는 그를 지지하였다.

하지만 힘에서 밀린 아부 누르는 인접국을 흡수한 세비아 타이파와도 결국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세비아 타이파 왕 알-무타디드(Al-Mutadid, 1016-1069)<sup>42)</sup>가 적극 확장 정책을 추진함에 따른 압박감이 작용한 것이다. 아부 누르는 결국 알-무타디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톨레도와 같이 다른 베르베르 타이파가 세비아 왕에 반감을 가져 연합을 제안해 왔을 때조차 아부 누르는 동참하지 않았다. 1052년 세비아 왕에게 론다 왕조를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세비아 타이파는 결국 1065년에 론다 타이파를 비롯하여 다른 타이파를 하나씩 점령해갔다. 또한 알-무타디드는 모롱(Moron), 아르코스(Arcos) 타이파의 왕들을 세비야로 불러들이면서 이들 모두를 감옥에 가두었다. 1053년부터 메르톨라(Mértola, 1044-45), 후엘바(Huelva 1051), 아르코스(1069) 타이파가 차례로 정복당하며 세비아 타이파에 종속되기도 했다.

이렇듯 생존을 위한 연합을 시도했지만 결국 세비아의 욕심으로 다른 타이파와의 협력 관계가 틀어지고 지역 정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아부 누르 또한 결국에는 세비아 알카사르에 수감되면서 론다 타이파 상황도 어려워졌다. 아들 벤 힐랄(Badis ben Hilal)은 이런 혼탁한 상황을 이용하여 1053년 왕위 찬탈을 획책했다.<sup>43)</sup> 아부 누르는 1057년이 되어서야 론다로 돌아갈

42) 알무타디드는 Abbad II Abû Am으로 알려진 세비아의 왕으로 1042년부터 1069년까지 집권했다. 그가 재임한 시기에 영토 확장 시기로, 주로 안달루시아 동부의 베르베르 소국들을 병합하였고, 잔인한 군주로도 유명하다.

<https://www.wikizeroo.org/index.php?q=aHR0cHM6Ly9mci53aWtpcGVkaWEub3JnL3dpa2kvQWJiYWVWRfSUk>

43) [https://es.wikipedia.org/wiki/Badis\\_ben\\_Hilal](https://es.wikipedia.org/wiki/Badis_ben_Hilal)

수 있었지만 이미 아들이 강탈과 핍박을 일삼고 있어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들에 대한 모든 권한 중지 명령을 내렸고, 그 결과 민심은 그를 왕좌에 다시 복귀시켰다. 아부 누르는 이듬 해 죽을 때까지 왕권을 거머쥐고 왕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다. 아부 누르의 둘째 아들은 8년을 왕좌에 머물렀다. 이후에는 알-무타디드의 세비야 타이파에 병합되면서 왕조로서의 짧은 수명을 다했다.

론다의 이슬람 지배는 카디스의 후작(Marquises of cádiz, 1443-1492)에 의해 1485년 끝을 맺는다. 그 후 도시의 오랜 건축물은 대부분 기독교의 역할에 따라 개조되거나 변경되었다. 레콘키스타 이후 스페인 종교 재판소는 스페인 거주 무슬림을 여러 방향에서 관리 통제하려고 했다. 1492년 그라나다 함락 이후 스페인은 모든 무슬림과 유대인들이 이베리아 반도를 떠나거나 기독교로 개종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무슬림은 자신의 종교를 비밀리에 실천하며 소유물 또한 지키고자 했다. 스페인의 기독교화로 인해 개종할 수밖에 없던 무슬림은 모리스코(Moriscos)라고 불렸다. 모리스코는 모자와 터번에 파란 초승달을 새겨야 했으며, 이로 인해 광신자들의 도발과 폭력이 발생하기도 했다. 모리스코는 사전 허가 없이 여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를 어기면 사형을 당하기까지 했다.

이렇듯 체계적인 억압은 무슬림들이 남부 안달루시아의 산악 지역에서 피난처를 찾도록 했다. 론다는 그러한 피난처와도 같은 곳이었다. 바누 이프렌 또한 무슬림으로서의 최소한의 정체성과 재산을 지키고자 론다로 피신하였다. 론다는 알제리의 콩스탕틴과 거의 흡사한 도시 구조를 갖는다. 완벽한 험곡지대에 도시 건설을 한 바누 이프렌이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1566년 필리페 2세는 아랍어 사용을 불법으로 하였으며, 무슬림의 예배가 금요일인 점을 이용하여 금요일에는 반드시 가정의 문을 열어두도록 했다. 이렇게 박해를 받은 무슬림들은 결국 강제 이주를 당했고, 모로코와 특히 알제리의 틀렘센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했다. 론다 타이파가 사라진 이후 바누 이프렌 또한 자신들이 초기 이슬람 왕조를 구축한 틀렘센으로 와서 안달루시아 문화를 개화시켰다. 이슬람을 받아들여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했던 바누 이프렌이 자신들이 꽃피운 안달루시아 문화를 다시 알제리의 틀렘센에 개화시킨 것이다.

#### IV. 바누 이프렌과 안달루시아, 남겨진 문제

바누 이프렌이라는 베르베르 부족을 안달루시아의 역사에 투영해보는 작업은 생소한 연구 작업이다. 그만큼 부족 간의 다양성, 기원, 경로 등을 파악하고 마그레브 지역에서 이슬람 초기 역사와 토착 베르베르인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안달루시아 문화가 단순히 아랍·이슬람 문화라는 정의적 개념에서 벗어나 마그레브의 베르베르인을 중첩시켜볼 때 안달루시아 내의 이슬람문화는 다양한 모습으로 재조명해볼 수가 있다. 이는 바누 이프렌이 살고 있던 마그레브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안달루시아 내의 베르베르, 마그레브와 안달루시아를 별도로 분리하여 볼 수 없는 매우 복잡한 문제가 파생되고, 안달루시아 문화의 다차원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베르베르' 영역일진데 학계에서는 그동안 이 문제를 간과해왔다.<sup>44)</sup> 베르베르는 역사 속에서 아랍과 혼용되어 그 정체성이 희미해지다 최근 들어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이슬람화된 사람들로 아랍과 때로는 동일한 면을 보이고, 때로는 이질적인 모습을 내보이기도 한다. 이슬람도 그렇지만 베르베르와 안달루시아를 연결할 때, 이 두 개념은 이베리아 반도라는 지리적 영역을 넘어 알제리, 모로코를 넘나드는 용어가 된다. 기존의 고정된 영역에서 '탈영토화'되고 새로운 영토를 만드는 '재영토화'의 생성 과정을 겪는다(들뢰즈 2003).<sup>45)</sup> 이런 과정은 우리에게 안달루시아

44) 특히 이 지역의 언어와 종교가 각각 아랍어와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동일성'으로 환원하고 이해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향후 더 많은 아랍어와 이슬람학자의 '베르베르' 영역의 연구 참여가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45) 베르베르를 연구의 기저를 이루는 내용에서 들뢰즈(Gille Deleuze, 1925-1995) 철학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중심'을 벗어난 '주변', '소수자' 등의 용어가 들뢰즈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로 자리하기 때문이다. 이슬람의 수프리즘도, 마그레브의 베르베르도, 이베리아반도의 베르베르도, 마그레브의 틀렘센도 모두 '주변'이면서 '소수자'였다. 하지만 이들 용어는 이슬람을 수용하고 변화시켜 결국 다시 틀렘센이라는 지역에서 모이는 공통점을 보인다. 문명사적으로 순환교류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윤용수 2017), '차이'와 '반복'이라는 들뢰즈 철학의 핵심과도 상응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이후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해 더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에 대한 새로운 ‘영역’ 발굴과 해석이 가능함을 알려준다. 안달루시아라는 시공간은 과거의 시간이다. 그런 점에서 지중해 세계, 특히 마그레브 이슬람 왕조와 유럽의 기독교 왕조, 중동의 이슬람 왕조 등과의 연결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게다가 현재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베르베르와의 연관성은 그런 시공의 개념을 초월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안달루시아는 현재적 시점에서도 진화하는 연구 ‘영역’인 셈이다.

베르베르 부족 바누 이프렌과 안달루시아의 관계를 추적하고 연구해가며 몇 가지 짚어볼 사항이 있다.

첫째,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화는 마그레브 이슬람화의 지속적인 이슬람화의 결과물이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은 마그레브와 이베리아 반도 이슬람화의 역사적 전개 과정 간의 유사성과 차이가 있다. 어떤 역사가들은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이런 문제에 접근하고, 또 다른 역사가들은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도 한다. 본고에서 우리는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화가 마그레브와 마찬가지로 베르베르인의 존재를 간과할 수 없음을 보았다. 베르베르는 이슬람군의 타리크 이븐 지야드(Tariq Ibn Ziyad, 670-719)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과 전진 및 배후 기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아랍화되어가는 상황에서도 바누 이프렌과 같은 베르베르 종족, 제나타 혹은 산하자족의 베르베르인이라는 이름으로 나름의 활동 영역을 확보해갔다. 이 세 가지는 별개의 사안이 아닌 동일한 역사적 실체이고 사실이다. 이를 고려할 때 안달루시아 문화의 확장된 의미, 생성적 영역으로서의 안달루시아 문화권을 더 다각도로 조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시기의 차이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을 한 베르베르인의 활동이 있었을 것이다.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화는 8년이 걸렸지만 마그레브의 경우 80년이 소요됐다. 이베리아 반도 내의 정치, 경제 체제가 견고하지 못하고 허약한 상태였음을 말한다.<sup>46)</sup> 그러므로 이슬람 군에 대한 저항 또한 마그레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다. 마그레브의 베르베르인은 이슬람을 받아들이며면서도 군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끝까지 저항했고, 심지어 아랍인

46) 당시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한 왕조는 서고트 제국이었지만 잦은 전쟁과 경제적 난관으로 결국 이슬람 세력에게 이베리아 반도를 내주었다.

총사령관 오크바 이븐 나피(Oqba Ibn Nafi, 622-683)를 알제리와 리비아 국경지대에서 살해하여 아랍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베리아 반도의 서고트족은 이슬람에 맞서 강하게 저항하지 못하기도 했으며, 당시 신흥 종교인 이슬람교에 오히려 열광한 편으로 초기 마그레브 지역과 흡사한 면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이슬람군에 타리크 이븐 지야드와 무사 이븐 누사르(Musa Ibn Nusayr, 640-716)와 같은 탁월한 지휘관이 있었던 것도 이베리아반도의 이슬람화의 빠른 진행에 공헌을 했다. 마그레브의 베르베르인이 이베리아 반도 점령에 다수 참여했다면 시기별, 지역별 베르베르인의 참여 정도가 어떠한지 여전히 의문이 드는 문제이다.

셋째, 11세기 안달루시아는 전례 없이 타이파 왕조들 간의 분열로 초토화되었고, 이 시기 안달루시아는 정의될 수 없는 여러 복잡한 현상들이 얽혀 있던 시기였다. 타이파 왕조들은 지리적 여건, 영토 확장, 주민 수, 경제 상황, 지도자의 힘 등에 따라 다양화되었다. 예를 들어 세비아와 같은 타이파 왕조는 오늘날 포르투갈이 있는 대서양쪽을 통합했고 지브롤터 해협까지를 지배했다. 발렌시아와 알메리카와 같은 왕조는 지중해쪽에서 활약했다. 톨레도나 코르도바와 같은 타이파 왕조는 내륙 지대에서 우위를 점했다. 세비아 타이파는 거대한 영토를 확보했고 론다 타이파와 같은 작은 왕조를 정복하기도 했다. 반면 실베스(Silves, 1027-1150)<sup>47)</sup>와 같은 타이파 왕조는 작은 영토를 소유할 뿐이었다. 그렇지만 타이파 왕조들은 힘의 논리에 따라 인접 왕조를 굴복시키거나 병합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결국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구조에 있었지만 누가 절대적 우위에 있지는 않았기에 경제 파괴 현상이 심각하게 드러났다.

우마이야 왕조 시대와는 달리 80년 동안 여러 왕조들이 난립하며 탈중앙화된 이 시기의 군사력은 약화되었고, 경제사회적인 조직과 위기 상황은 이 시기 유일하게 돋보인 문화적 발전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이런 현상은 알모라비드 왕조가 들어선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11세기부터 15세기 말까지 안달루시아를 지배한 알모하드 왕조와 나스리드 왕조 시대에도 지속되었

47) 포르투갈 파루 현에 위치 한 작은 도시이다. 안달루시아 시기 타리파 왕조를 건립했지만, 이후 알모라비드와 알모하드 왕조에 통합되었다.

[https://fr.wikipedia.org/wiki/Silves\\_\(Portugal\)](https://fr.wikipedia.org/wiki/Silves_(Portugal))

다. 안달루시아 문화와 예술은 지배적인 정치 속성이 무엇이든 간에 번영했다. 안달루시아 문화의 보편적 특성은 나스리드 왕조가 무너진 이후에도 이베리아 반도 너머의 틀렘센과 같은 마그레브 지역에서도 지속될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안달루시아 문화권은 마그레브의 틀렘센과 같은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룬다 타이파의 붕괴와 레콘키스타 이후 이베리아 반도에서 쫓겨난 바누 이프렌이 마그레브에서 어떻게 안달루시아 문화를 지속시켰는지는 안달루시아 문화권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 V. 결론

지금까지 ‘베르베르’라는 용어를 통해 마그레브 초기 이슬람 왕조, 나아가 이베리아 반도의 안달루시아 문화권을 조명해보았다. 그동안의 국내 연구는 안달루시아 왕조의 주축이 아랍·베르베르인이라는 사실로만 알려졌을 뿐, 베르베르인만의 왕조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가 없다.<sup>48)</sup> 게다가 여러 베르베르인의 명칭, 즉 산하자 베르베르, 제나타 베르베르, 카빌리아, 샤우이아 등의 부족의 활동 영역, 정체성 등의 구분을 하지 않은 채 모두 ‘베르베르’라는 용어로 획일화하여 사용해왔다. 본고에서는 ‘바누 이프렌’이라는 베르베르 부족을 조명하여 초기 마그레브 이슬람 왕조의 특징, 이후 이베리아 반도에 진출하여 이들이 건립한 이슬람 왕조를 살펴봄으로써 안달루시아 문화권의 베르베르적 정체성을 조명해보고자 했다.

‘바누 이프렌’과 ‘베르베르’에 대한 조명은 마그레브 이슬람과 안달루시아 문화의 역사적 과정의 재구성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요소를 포착하게 한다. 첫째, 잘 알려져 있듯이 마그레브와 안달루시아에서 이슬람은 페니키아와 로마를 대체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부여해주었다. 마그레브의 경우 이슬람화된 이후 현재까지 이슬람 지역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48) 이 부분은 국외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국외의 경우 바누 이프렌의 가계도가 있을 뿐이며, 틀렘센의 바누 이프렌 왕조(혹은 수프리즘 왕조)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이를 안달루시아와 연결시킨 연구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없어 보인다.



주체가 생략되어 있는데, 바로 '베르베르'와 '베르베르인'이었다. 둘째, 안달루시아의 이슬람은 단순한 종교 이상의 것으로 사회와 문화적 변혁을 주도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안달루시아의 사회 구조는 서고트족의 봉건 사회를 무너트렸으며, 아랍어는 새로운 문화의 중심으로 등장했다. 이들 안달루시아 문화는 이후 마그레브 지역의 안달루시아 문화 확산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 특히 2011년 이슬람문화의 수도로 지정된 알제리 틀렘센의 경우 이베리아 반도에서 넘어 온 안달루시아 문화를 이어받아 개화시킨 곳으로도 유명하다. 틀렘센은 마그레브 최초의 이슬람 수프리즘 왕조가 세워진 곳으로 이슬람을 처음 수용한 곳이다. 셋째, 윤용수(2017: 31)는 지중해 문명이 '복합적 순환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마그레브의 토착민인 베르베르인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로마의 착취와 강압적 지배, 차별화된 정책에 반기를 들어 이슬람이 마그레브 지역에 들어올 때 가장 열광적으로 받아들였다. 저항도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받아들인 이슬람을 바탕으로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화에 기여했다. 11세기부터 진행된 이베리아 반도의 탈중앙화는 바누 이프렌과 같은 베르베르 부족이 부활하는 상황을 맞게 했다. 이들은 정치·군사적으로는 소국이었지만 문화적으로는 번성하였다. 레콘키스타 이후 바누 이프렌을 비롯한 베르베르인은 마그레브 지역으로 넘어와 안달루시아 왕조를 쫓피우는 데 일조했다. 틀렘센에 수도를 둔 자야니드왕조(Zayyanid dynasty, 1235-1556)는 알제리의 대표적인 안달루시아 이슬람 왕조이다. 이들은 마그레브 이슬람 초기 수프리즘 왕조를 세운 바누 이프렌의 후예들로 구성되어 이후 알제리 내 안달루시아 문화의 중요한 지역으로 남게 된다.

'바누 이프렌'을 통해 우리는 지중해 세력이 공급자·수혜자의 관계가 상호적이라기보다 순환적 교류 구조로도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연구이지만 이는 오늘날 마그레브 지역에서 보이는 틀렘센의 정체성을 여러 각도에서 재조명해볼 수 있고, 이는 안달루시아 문화권의 확장이라는 의미에서도 중요해 보인다. 그동안 모로코에 비해 알제리 내 안달루시아 문화 연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안달루시아 문화권 연구의 확장이라는 의미에서도 지속적인 자료 발굴과 연구, 학제간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 참고문헌

- 김광수, 「사하라 무역로와 서아프리카 수단 지역 문명의 발전」,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 56권 제 1호, 2009.
- 김정위, 『이슬람 사전』, 서울. 학문사, 2002.
- 들뢰즈, 『천개의 고원』, 서울, 김재인역, 새물결, 2003.
- 마이클 모건, 『잃어버린 이슬람: 서양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이슬람 문화의 황금기 역사』, 서울, 김소희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 손주영, 『이슬람 칼리파制史: 이슬람 정치사상과 역사』, 서울, 민음사, 1997.
- 아이라 M. 라피두스, 『이슬람의 세계사 1』, 서울. 신연성역, 이산, 2009.
- 윤용수, 「지중해 문명교류학을 위하여」, 『지중해문명교류학』 지중해지역원 인문총서시리즈, 21-45. 서울, 이담, 2017.
- 임기대, 「베르베르어의 기원과 ‘네오-티피나그(Neo-Tifinagh)’ 문자에 나타난 몇 가지 특성 연구」, 『프랑스문화연구』 제 26집, 2013.
- 임기대, 「교차와 혼성’의 베르베르어권 ‘음자브’(M'zab) : 인류학적 종교적 관점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성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제 86집, 2014.
- 임기대, 「프랑스 내 ‘베르베르인’의 이민 과정과 그 위상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제 42집, 2016.
- 임기대,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베르베르’(Berber) 정책이 마그레브 지역의 문화 변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 53권, 제 1호, 2018.
- 임기대, 「안달루시아 문화 지역에 나타난 이슬람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제 108권, 제2019.
- Faysal Cherif, “La Tunisie dans sa dimension africaine et méditerranéenne?”, *Conference i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IMS)*, 2019.
- Frederic P.Miller, Agnes F.Vandome, John McBrewster, *Banu Ifran, Berber people, Tlemcen, Sufri, Abbassids, Maghraoua, Banu Sulaym, Almoravids, Hammadid, Ronda*, Alphascript Publishing: (Mauritius), Detroit, 2010
- Gabriel Camp, *Les Berbères: Mémoire et Identité*, Actes Sud, France, 2007.

Ibn Khaldoun, *Histoire des Berbères*, traduit par Baron Slane, éd. Berti, Alger, 2003.

John, Gil, "Ronda History", *Andalusia.com*. 1996.

Virginie Prevost, "Les Ibadites. De Djerba à Oman, la troisième voie de l'Islam, Turnhout, Brepols", *Revue européenne des sciences sociales*, 281-283, 2012.

Source Wikipedia, *Berber Group: Banu Ifren, Berber Dynasties, Garamantes, Guanches, Kabyle People, Kabylie, Mozabites people, Tribes of Lybia, Tuareg, Zenata*, General Books, 2011.

## 언론기사

*El Watan*, "Afrique, quel est ton nom ?", (2017.11.09.) (검색: 2019.5.20.).

## 인터넷 자료

[http://www.wikiwand.com/fr/Banou\\_Ifre](http://www.wikiwand.com/fr/Banou_Ifre) (검색:2019.3.20).

[https://fr.wikipedia.org/wiki/Banou\\_Ifren](https://fr.wikipedia.org/wiki/Banou_Ifren) (검색:2019.8.11).

<https://fr.wikipedia.org/wiki/Meknassas> (검색:2019.7.15.).

<https://fr.wikipedia.org/wiki/Fitna> (검색:2019.7.27.).

<https://en.wikipedia.org/wiki/Saqaliba> (검색:2019.8.10.).

[https://en.wikipedia.org/wiki/Zirid\\_dynasty](https://en.wikipedia.org/wiki/Zirid_dynasty) (검색:2019.5.25.).

<https://en.wikipedia.org/wiki/Ronda> (검색:2019.5.14.).

[https://en.wikipedia.org/wiki/Sulayman\\_ibn\\_al-Hakam](https://en.wikipedia.org/wiki/Sulayman_ibn_al-Hakam) (검색:2019.9.17.).

[https://es.wikipedia.org/wiki/Badis\\_ben\\_Hilal](https://es.wikipedia.org/wiki/Badis_ben_Hilal) (검색:2019.5.27.).

<https://www.wikizeroo.org/index.php?q=aHR0cHM6Ly9mci53aWtpcGVkaWUub3JnL3dpa2kvQWJvdV9Ob3Vy> (검색:2019.8.24.).

<http://franco56.com/pdf/geocronotassi/A/ALGERIA/TILIMSAN=TLEMCEN=TREMISSEN.pdf> (검색:2019.8.15.).

[https://fr.wikipedia.org/wiki/Silves\\_\(Portugal\)](https://fr.wikipedia.org/wiki/Silves_(Portugal)) (검색:2019.9.10.).

❖ ABSTRACT

## A study on the Berber tribes ‘Banu Ifran’ of Andalucia and Maghreb

Lim, Gi-da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examines the early Islamic dynasty of the Maghreb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erm “Berber”, and it further explores the Andalusian culture and the Ronda Taifa kingdom of the Iberian Peninsula. So far there has been no research conducted on the Berber tribe of the ‘Banu Ifran’. By investigating the ‘Banu Ifran’ tribe, this study inquire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early Maghreb Islamic dynasty, as well as the Ronda Taifa kingdom, which they built in the Iberian Peninsula. The focus on ‘Banu Ifran’ and ‘Berber’ tribes has significance in the reconstruction of the historical process of Maghreb Islam and Andalusian culture.

Studying the ‘Banu Ifran’ tribe show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pplier and recipient of the Mediterranean area had a structure of circular exchange, rather than reciprocal exchange. Although the study is only based on historical facts, it helps to re-examine the identity being displayed today in the Maghreb region from various angles, which is also important as part of the expansion of the Andalusian culture. There is a scarcity of study of the Andalusian culture in Algeria, compared to that of in Morocco. Hence, this paper plays an important role in adding to the existing literature about Andalusian culture, and it seems that ongoing research is necessary.

Key Words : Berber, Banu Ifran, Andalusia, Ronda taifa, Circulation of civilization

■ 논문접수일 : 2019. 11. 10

■ 심사완료일 : 2019. 12. 01

■ 게재확정일 : 2019. 12. 03

